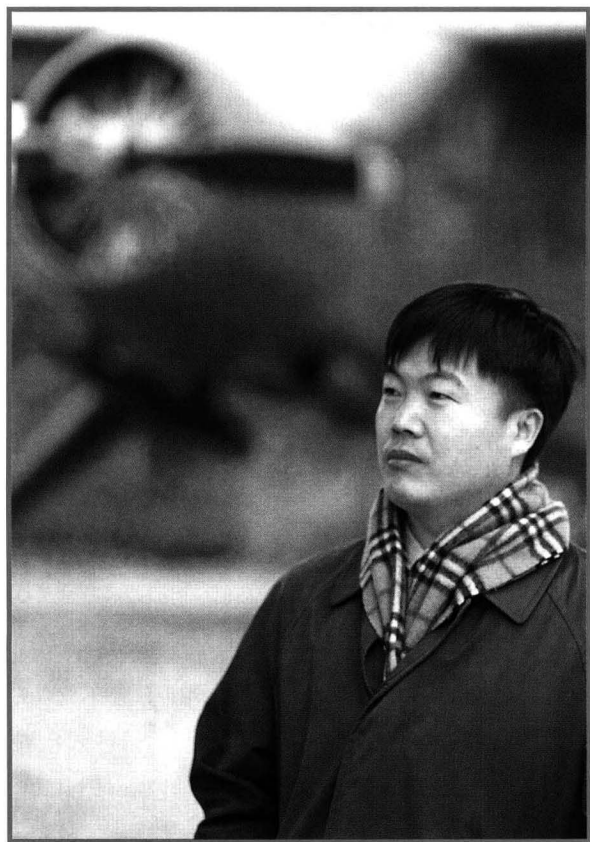


동아일보 동화부문 당선한 육사 출신 예비역 대위 조준호

《데미안》과 《어린왕자》같은 독특한 세계 펼쳐 보일 터



신춘문에 동화부문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대위 조준호(40) 씨가 당선되어 새해 첫날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문예창작과와 대학원 국문과 출신이 유난히 많았던 2004년 신춘문에 경향을 떠나서라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동화작가 등단은 문단의 '뉴스' 입에 분명하다. 조준호 씨의 당선작 <그림자 각시와 매화무늬 표범>은 그림자와 놀기를 좋아해 '그림자 각시'란 별명이 붙은 어린 노루의 지혜를 보여주는 작품. '매화무늬 표범'의 잔꾀에 '그림자 각시'가 맞서는 지혜대결이 흥미로운데, 무엇보다 조준호 씨의 역량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장면전환에 있다. 영상적인 구성의 묘미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단락과 단락 사이의 공백마저 상상케 하는 독특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작품의 서평이 길어진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육사 출신이란 이색 이력은 그의 창작에 있어 걸림돌이 아니라, 상상력

과 이야기를 몰고 다니는 '작전'과 '임무수행'의 도우미였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서 금세라도 내란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였죠. 대의라고 하면 부끄러울 뿐이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해 암울한 정세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전역하기 2년 전부터 틈틈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책을 탐독하게 되면서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련 없이 대위로 전

역한 그는 대기업에 입사, 영업일을 하며 틈나는 대로 글을 썼다. IMF 지원체제 시기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간절했던 터라 실직이 얼마간 반갑기까지 했다. 전업작가라도 된 듯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소설과 동화, 시와 시나리오 등 닥치는 대로 글을 썼고, 여기 저기 창작수업을 수강하며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세월이었지만, 눈치 없게도 문학에 대한 열정만은 몹시 뜨거웠던 때였다.

“몇 년 전 동화로 처음 신춘문예에도 전했는데 최종심까지 올랐어요. 작고하신 정채봉 선생님이 심사하셨는데 심사평에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듬해 응모를 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지요. 그러고선 응모를 몇 해 쉬었습니다. 묵혀두었던 작품을 꺼내놓고 보니 제 작품의 장단長短이 객관적으로 보

이더군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올해 작품을 응모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화를 쓰는 데 있어 조준호 씨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바로 11살 박이 8살 박이 두 딸이다. 아버지가 동화를 쓰는 것이 마냥 신기한 두 딸은 그가 쓴 동화들을 가장 먼저 읽고 평해주는 고급독자다. 이따금 제목선정에도 두 딸이 관여(?)하는데, 지난 200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기금후원을 받아 낸 《푸른 연못의 비밀》은 두 딸이 선택해준 제목이다. 그에게 정식등단은 2004년이 되겠지만, 이미 그는 한 권의 장편동화를 갖고 있는 작가였던 셈이다.

“어린이 그림책으로 작업해 봄직한 동화 몇 편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밑천에 연연하지 않고 지면이 닿는 대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데미안이나 어린왕자 같은 독특한 세계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문명과 사람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동화도 생각중이구요. 작가는 이름을 공인받았으니, 쉽 없이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인터뷰 내내 '기교 부리지 않는, 서사가 분명한 동화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눈은 아기 노루 '그림자 각시'의 눈처럼 순하고 맑아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 대단한 지혜의 피가 숨어 있음을 어느 누가 짐작할까. 그의 경쾌한 첫 걸음이 오래도록 속도와 리듬을 잃지 않기를 기자는 내심 바랐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